〈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계명도,** 20세기 초. 닭은 예로부터 새벽이면 어김없이 때를 맞춰 우는 동물이자 여명을 밝히는 상서로운 존재로 인식됐다. 닭의 울음과 일출을 묘사하고 있다 ▲**오동계자도,** 조선 후기. 오동나무 아래 수탉은 경계를 서고 암탉은 병아리들에게 먹이를 주는 평화로운 정경을 그렸다. 병아리 다섯 마리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는 오자등과(五子登科)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변상벽 닭 그림,** 17~18세기. 고양이를 잘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 변상벽의 작품이다. 닭은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불러 함께 먹는 동물로, 이를 닭의 5덕 중 인(仁)이라 했다 ▲**쌍계도,** 1900년. 심전(心田) 안중식(1861~1919)이 벚나무와 바위를 배경으로 암수 닭 한 쌍을 그렸다. 암탉은 웅크려 앉아 있고 수탉은 암탉을 보호하는 듯 꼿꼿하고 용맹한 자태를 뽐낸다 ▲**금계도,** 19세기. 오동나무 아래 금계 한 쌍이 있고 물 위의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오른 모습과 함께 영지와 산호, 괴석과 구름 등을 배치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닭 모양 연적, 19~20세기.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는 수탉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볏과 꼬리, 날개에는 안료를 사용해 다채롭게 장식했다.

19~20세기. 종묘 제례에 쓰이는 제기로 닭이 새겨져 있다.

우렁찬 목소리, 희망을 알린다

▶ 복을 기원하는 닭

예로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져 무속신앙에선 닭의 피로 부적 써서 지닐때 사악함을 물리친다고 믿어

▶ 올해 개혁의 바람 '결실' 맺나?

동이 틈을 알리는 우렁찬 목소리 밝음으로 나아간다는 맥락에서 '개혁'을 의미… 근본의 개혁 필요

017년은 정유(丁酉)년이다.

정유는 육십갑자에서 34번째에 위치하며 천간의 정(丁)이라는 글자는 화의 기운을 의미하고 붉은 색을 나타낸다. 지지의 유(酉)라는 글자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12지 중에서 닭이라는 동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이다.

닭이라는 동물은 예로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무속신앙에서는 닭의 피로 부적을 써서 지니고 있으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고 믿었으며, 복을 기원한다고 믿어 닭의 그림을 걸어놓기도 했다. 문서에서도 이와 같은 기록이 있는데 '동국세시기'에는 정월 원일(正月元日)에 항간에서는 벽 위에 닭과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액이 물러나기를 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닭은 액을 막는 수호초복의 기능이 있는 동물로 나타난다.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서, 닭의 울음소리는 귀신을 쫓는 벽사의 기능을 가졌다고 보았다. 때문에 닭이 제때에 울지 않으면 불길한 징조로 여겼는데, 닭이 초저녁에 울면 재수가 없다고 하고 밤중에 울면 불길하다고 하며 수탉이 해진 뒤에 울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동국세시기'에는 대보름날 꼭두새벽에 첫 번째 우는 닭의 울음소리 횟수를 세어 점을 치는 계명점(鷄鳴占)이 소개되는데, 새벽에 우는 닭의 울음이 열 번이 넘으면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동의보감'에는 붉은 닭과(丹雄鷄)·흰수탉(白雄鷄)·검은수탉(烏雄鷄)·오골계(烏骨鷄)로 나누어 각각 효험을 서술하고 있다. 붉은 닭은 성질이 미온(미한)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어 몸이 허한 것을 보하고 독을 없애며 상서롭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고 했다.

한영의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계유오덕'이라는 말이 나온다. 춘추시대 충직한 신하였던 전요(田饒)는 간신들에 의해 국사를 그르치는 노(魯)나라 애공(哀公)에게 자신이 물러나는 관직에 닭을 천거했다. 애공(哀公)이 어찌하여 닭을 천거하느냐고 묻자 전요는 닭에 머리에 관을 쓴 것은 문(文)이요, 발에 갈퀴를 가진 것은 무(武)요, 적에 맞서서 감투하는 것은 용(勇)이요, 먹을 것을 보고 서로 부르는 것은 인(仁) 이요, 밤을 지켜 때를 잃지 않고 알림은 신(信)이다. 닭은 이렇게 다섯 가지의 덕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며 동물인 닭에 있는 덕목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간신을 비판했다.

닭띠는 심성이 착하고 성정이 곧으며 의지가 강한 반면 이해심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고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확신에 찬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머리가 좋아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며, 영민하고 육감이 발달된 것이 특징이며 문무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두각을 나타낸다.

닭의 우렁찬 목소리로 동이 트고 있음을 알리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며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나아간다는 맥락에서 개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도행역시(倒行逆施-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 2014년 지록위마(指鹿爲馬, 거짓이 진실을 가린다.), 2015년 혼용무도(昏庸無道, 세상이 어지럽고 무도하다.), 2016년 군주민수(君舟民水, 백성이 화나면 왕위를 뒤집는다)의 해를 보냈던 국민들에게는 새롭고 희망찬 정유년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정유년에는 2016년부터 불어온 개혁의 바람이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구설과 시비가 난무하겠으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그 상황에서 희망을 다시 갖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겉에서만 자행되는 개혁이 아니라, 근본의 개혁이다. 법과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나 주권의 당사자인 국민이 우선시 되는 제도가 아니면 이는 곧 사상누각과 같게 될 것이다.

2017년에는 철강 쪽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불황이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투기성이 있는 일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해외수출은 당분간 침체되어 있으니 국내산업 육성과 기반을 다지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좋겠다.

/김영재 기자

▶▶ 2017년 띠별 운세 ◀◀

**띠로 운세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것을 간명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있어야 합니다.

쥐띠	외부적으로는 이득이 따르고 평탄한 운세이나 내부적으로는 불안하니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운이다.	**소띠**	상반기를 지나가면서 좋은 운이 열리는 해가 될 것이다. 상반기에는 준비를 중, 후반기에는 준비한 것을 펼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범띠**	외부적으로 확장하기 보다는 내실에 치중해야 할 때이다. 특히 손재수가 따르니 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토끼띠	귀인을 만나는 운이니 만나는 사람에 대해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금전운은 아직 좋지 않으니 일의 시작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	**용띠**	정체되어 있던 운이 풀리고 활기를 되찾는 길한 운이다. 사람과 화합도 잘되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만 욕심은 부리지 마라.	**뱀띠**	생각했던 결과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 다만 사람을 만날 때에는 술자리 실수를 조심할 것. 음력 9월 10월 11월을 조심하라.
말띠	사람으로 인해 경사가 따르는 운으로,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그러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양띠**	금전운이 좋아지나 투기는 금물이다. 하나씩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진행하라.	**원숭이띠**	엉켜 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시기다.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음력 1월, 4월을 조심하라.
닭띠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자가 생겨 고심하는 일이 생기나 결국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운이다. 음력 1, 2월을 경계하라.	**개띠**	전반적으로 순탄한 해가 되나 이성을 조심해야 하는 운으로, 이성으로 인해 손해가 따르는 운이다. 봄에서 여름사이를 주의하라.	**돼지띠**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고 힘든 일도 사람으로 인해 해결된다. 음력 4월에는 여행이나 원행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자료제공

홍주미 소장

Profile

-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 동양학 석사
- 동양철학 박사수료
- 사단법인 한국 역리학회 학술위원장
- 사단법인 한국 역술인협회 부이사장
- 사단법인 한국 역리학회 강사자격 취득
- 롯데백화점 MBC문화센터 명리학 강사 역임
- 한국 국제 역학대회 개최 임원

**문의전화: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